

전남도의회, '의대 신설·정원 확대' 국회에 요구

정부 의대 신설보다 정원 확대 방침

전남지역 전국서 유일하게 의대 없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사 수 증원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지역 정치권이 정원 확보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남지역 의대 정원 확보를 요청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지역은 섬지역 등 도서벽지가 많아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30년 넘는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가닥을 잡으면서, 전남지역 정치권도 지역 의대 정원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와 정치권, 의사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이 적은 곳, 국립 의대, 지방의대, 의대가 없는 곳, 인구 대비 의

사 수 비율 등을 감안해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내 의대 40곳 중 17곳(42.5%)이 정원 50명 미만인 '군소대의'로 분류된다. 현재 광주에 위치한 전남대와 조선대는 각각 의대 정원이 125명으로 군소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전남지역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도서벽지가 많아 의료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것이 의대 정원 확보에 유리한 점이다.

의사협회도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인력과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의대 유치 대책위 최선국 공동위원장은 "당장 의과대학 신설이 어렵다면 우선 의대 정원부터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며 "앞으로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의



전남도의회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최선국 공동위원장 등이 1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을 방문해 전남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의과대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공감대를 확대해 반드시 지역 의료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신민호 공동위원장, 박

경미·김호진·정철·이규현·박원중 전남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변용일 기자

광주시 "산재예방 위험성 평가 컨설팅 받으세요"

5인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곳

광주시는 산재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을 소규모 사업장 50곳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인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 제외 업종)에 대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통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8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수행기관)를 최종 선정했다.

컨설팅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장을 방문,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사업장별 핵심 위험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돕는다.

접수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류 확인 뒤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10일까지이며, 사업장은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결과는 개별통지할 예정이고 컨설팅 비용은 무료이다.

서선욱 기자



한전KPS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848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수주했다. 사진은 남아공 전력공사(ESKOM) 소유의 쿠백(Koebeg) 원자력 발전소 전경. (사진=한전KPS 제공)

한전KPS '3년 연속' 남아공 발전 정비 수주...누적 850억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850억여 원에 달하는 발전소 정비공사를 수주했다.

한전KPS는 남아공 전력공사(ESKOM)와 오는 10월부터 3년간 진행되는 화력·원자력 16개 발전소 정비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한전KPS는 남아공에서 2021년 약 170억원, 2022년 약 230억원 규모의 정비공사 체결에 이어 3년 연속 대형계약을 수주하게 됐다.

여기에 지난 2년간 사업 수행실적을 인정받아 종합 정비공사에 더해 4개 발전소의 경상정비·부품 가공정비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돼 약 120억원의 추가 매출까지 확보했다.

특히 한전KPS는 지난 2022년 아프리카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인 남아공 쿠백(Koebeg) 원전 2호기 정비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올해도 장기계약 수주를 통해 정부 국정 과제인 원전수출 확대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됐다.

이슬비 기자

보성 벌교농협 대의원 교육 실시

1박2일동안 농협경주교육원서 대의원·임직원 등 70여명 참석

전남 보성 벌교농협(조합장 송영모)은 12일부터~13일까지 1박2일동안 농협경주교육원에서 벌교농협 대의원교육을 실시했다.

농협 대의원과 임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교육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대의원의 역할과 자세 및 벌교농협과 핵심 리더의 행복한 동행"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에 참석한 대다수의 대의원이 이

번 교육이 정말로 알차고 뜻있는 교육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으며, 앞으로의 농협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송영모 조합장(오른쪽 앞줄 6번째)은 "이번 교육원 입소를 통한 교육으로 무엇보다도 대의원의 역할과 자세를 정확히 이해하여 농협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줄 대의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10월 전국체전에 해외동포선수단 1천300여명 대거 참가

전남도, 국가별 지원전담반 구성 등 손님맞이 준비 착착

전남도는 오는 10월 개최하는 제104회 전국체전에 18개국 1천316명의 해외동포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 참가 규모 면에서 2019년 서울대회(18개국 1천868명)와, 2014년 제주대회(17개국 1천614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규모다.

가장 많은 선수단을 파견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선수와 임원 128명이 참가한다. 이어 필리핀 124명, 인도네시아 115명, 홍콩 110명, 일본 106명 등의 순이다.

전남도는 고국을 찾는 해외동포선수단 편의 지원을 위해 국가별 지원전담반을 구성해 입국부터 출국 때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차량 1천736대를 지원한다.

또 10월 16일 고국 방문을 환영하고 선수단 격려를 위해 도지사 주재 환영 만찬을 마련해 선수단에게 고국의 정을 가득 안겨줄 계획이다. 방역 지원을 통해 선수단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숙소에 와이파이 설치, 삼성전자

협찬 에어머니(편의용품)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해외동포선수단이 국가별 단체 투숙으로 숙소 예약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 공공기관과 수련원 등에 협조를 구해 가격이 저렴한 하룻방도 쾌적한 전남인재개발원, 가톨릭 목포성지 한국레지오마리아에기념관 등 11개소에 선수단의 투숙 예약을 6월에 이미 마쳤다.

해외동포선수단은 다문화가정과 유망선수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필리핀 선수단은 필리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망고장학금 1천800만 원(36명)을, 미국은 장학

금 200만 원(2명)을, 독일은 갯잎장학금 140만 원(1명)을, 호주는 코알라 후원금 100만 원(1명)을 각각 전달했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해외동포선수단에게 가장 한국적인 매력을 지닌 남도의 맛과 멋을 선사할 것"이라며 "이번 전국체전이 국민대화합을 넘어 한민족 축제의 장으로 치러지도록 총력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비롯한 도내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국연립진흥재단
Korea United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아예남겨서 재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월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5월	240,833원 (1.1배)
4월	125,531원 (1.7배)
3월	79,147원 (2.1배)
2월	48,103원 (2.7배)
1월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험료 159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